

# 광주지방기상청-전남자치경찰위-전남소방본부 업무협약 체결

- 다국어 안전전남 플랫폼을 활용한 기상·재난·안전정보 제공 강화 협력-

- 광주지방기상청(청장 정현숙)과 전남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정순관), 전남소방본부(본부장 주영국)는 외국인과 도민 모두가 재난·사고·기상 위험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12월 23일(화) 전남자치경찰위원회 회의실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다국어 안전전남 앱 운영과 안전정보 제공을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 이번 협약은 전남지역 산업 현장과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남자치경찰위원회가 추진 중인 다국어 안전전남 앱을 중심으로, 재난·안전·기상정보를 보다 실시간으로 연계·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언어장벽으로 인해 안전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통합 안전정보 체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 협약에 따라 광주지방기상청은 기상 예·특보와 영향예보, 위험기상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전남소방본부는 화재·구조·구급 등 소방 관련 정보를 제공하게 되며,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다국어 안전전남 앱의 안정적 운영과 외국인 대상 안전정보 제공을 총괄하게 된다.
- 더불어 외국인을 포함한 전남도민의 치안·재난 및 응급상황 대응을 위한 기관 간 원활한 업무자료 협조, 기관 교류 활성화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해서도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 정순관 전남자치경찰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자치경찰위원회, 소방본부, 기상청이 각자의 전문성을 결합해 도민과 외국인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며, “앞으로도 다국어 안전전남 앱을 중심으로 현장에 즉시 도움이 되는 안전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전남형 자치치안과 재난안전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 주영국 전남소방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다국어 안전전남 플랫폼을 중심으로 소방·기상·치안 정보를 하나로 연결해 도민과 외국인 주민 모두에게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안전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협력의 출발점” 이라며,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재난·응급상황 대응력을 높이고, 누구도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는 안전한 전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 정현숙 광주지방기상청장은 “이번 협약은 외국인 주민의 재난 대응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안전서비스를 만드는 중요한 계기” 라며, “앞으로도 세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외국인 주민을 포함한 전남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구성에 기여하겠다” 고 말했다.
- 다국어 안전전남 앱은 전남자치경찰위원회에서 올해 11월 정식 오픈했으며, 영어·중국어·베트남어 등 6개 국어로 치안·재난·생활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 붙임 광주지방기상청-전남자치경찰위-전남소방본부 협약식 사진

담당 부서	광주지방기상청 예보과	책임자	과 장	주형돈 (062-720-0320)
		담당자	사무관	김문용 (062-720-0331)
<공동>	전남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전병현 (061-286-2960)
		담당자	팀 장	송태경 (061-286-2970)
<공동>	전남소방본부 예방안전과	책임자	팀 장	주경애 (061-860-4840)
		담당자	조정관	이대명 (061-860-4841)

